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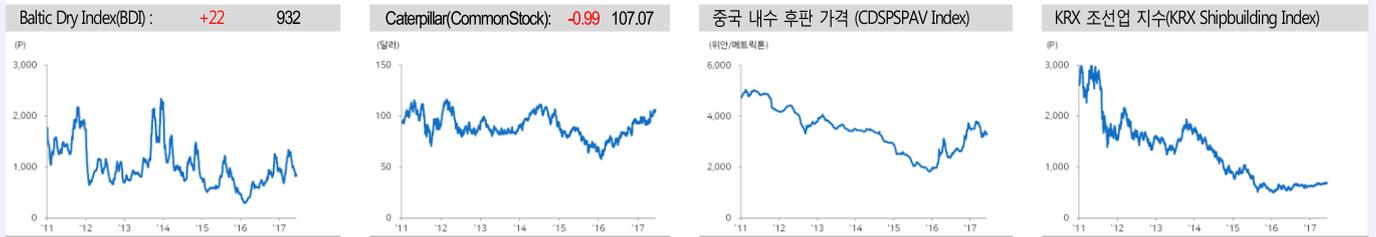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9,548.1	20.5	168,500	-0.9	-6.4	NA	21.7	32.7	73.4	0.8	0.8	2.4	1.1
현대로보틱스	4,810.1	17.7	399,500	-0.9	-0.4	NA	NA	7.7	8.6	0.9	0.8	11.6	9.5
현대일렉트릭	1,135.3	8.0	306,000	-0.3	-3.6	NA	NA	14.6	15.1	1.3	1.2	9.1	8.1
현대건설기계	1,306.4	10.3	364,500	-3.4	0.3	NA	NA	14.5	12.6	1.6	1.4	11.1	11.4
삼성중공업	4,485.0	19.8	11,500	-4.2	-13.2	13.9	24.3	58.3	124.4	0.7	0.7	1.2	0.6
대우조선해양	NA	3.8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2,130.0	13.5	106,500	-0.9	-7.8	26.8	58.5	134.3	162.9	0.9	0.9	0.7	0.6
한진중공업	453.4	4.9	4,275	0.1	-13.1	27.6	27.0	-13.3	9.7	0.5	0.5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438.5	28.7	58,400	-0.7	-6.6	-3.3	1.7	8.8	7.9	1.5	1.3	18.7	17.5
두산인프라코어	3,483.7	24.2	34,750	-0.3	0.3	-3.9	-3.1	15.3	14.0	1.0	0.9	6.6	6.7
현대로템	1,640.5	29.0	19,300	-1.8	-14.2	-4.5	6.3	36.6	24.7	1.2	1.1	3.2	4.6
하이룩코리아	326.7	46.1	24,000	-3.6	-4.0	13.5	13.7	12.6	11.1	1.0	1.0	8.5	9.0
성광켄드	280.9	13.4	9,820	-2.3	-6.0	-6.5	10.8	31.7	18.3	0.6	0.6	1.9	3.2
태광	252.3	17.3	9,520	-2.4	4.0	5.2	14.8	35.6	19.6	0.6	0.6	1.6	2.9
두산중공업	2,203.7	11.9	20,700	1.7	-3.5	-11.3	-23.9	14.0	9.7	0.7	0.7	4.9	6.8
두산인프라코어	1,703.2	15.5	8,210	-1.7	-2.8	-12.7	-6.9	9.8	8.2	0.8	0.7	8.5	9.6
두산엔진	284.3	5.3	4,090	-1.0	-2.4	25.5	24.5	19.7	21.6	0.5	0.5	2.7	2.3
한국항공우주산업	4,673.9	23.5	47,950	-6.0	-19.8	-22.3	-28.4	19.4	16.3	3.0	2.6	16.1	17.0
한화테크윈	2,035.6	24.6	38,700	-1.5	-12.6	-21.3	-10.9	17.5	13.5	0.9	0.8	4.9	6.2
LG넥스원	1,478.4	19.3	67,200	0.1	-10.0	-23.5	-16.5	17.9	13.5	2.1	1.9	13.2	14.8
태웅	481.2	4.2	24,050	-0.6	-16.2	-6.6	7.1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62.4	2.9	6,020	-1.0	-3.7	-11.5	4.7	-28.0	12.0	1.5	1.3	-5.1	12.0
한국카본	266.8	17.1	6,070	-1.0	-7.2	-9.4	0.3	23.8	22.6	0.8	0.8	3.5	3.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McCain launches bid to remove Jones Act's US-build rule

미국 상원의원인 John McCain이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Jones Act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 과거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경험이 있는 John McCain은 과거부터 Jones Act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음. (Tradewinds)

Nakilat and Hoegh LNG pen FSRU partnership

카타르의 LNG 선사인 Nakilat와 FSRU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Hoegh LNG가 FSRU 부문에 대한 협력 관계를 체결함. Nakilat는 현재 29척의 LNG선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FSRU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Hoegh LNG는 수주잔고를 포함해 10척의 FSRU 선대를 보유하고 있음. (Tradewinds)

Brazil seeks to ease local content rules

브라질의 National Petroleum Agency(NPA)가 Local Content 규정을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NPA는 연초에도 Local Content 규정을 한차례 완화한 바 있음. 브라질은 규제 완화를 통해 Oil Major 등 해외 투자 자본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음. (Upstream)

강한구 현대중 사장 "군산조선소 일감 더 기다려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강한구 사장이 군산조선소의 일감 확보 시점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군산조선소는 1.2조원의 투자를 통해 설립되어 2010년 처음 가동 이후 7월 1일부터 가동 중단에 들어간 바 있음. 현대 중공업 울산조선소 역시 도크 3개의 가동을 중단한 상황임. (머니투데이)

박대영 삼성중 사장 "2년 정도는 임금 반납도 감수해야"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이 1년 반 내지 2년 정도는 구조조정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함. 다만 구조조정 계획 자구안은 상황이 좋아지면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공정이 지연되어 왔던 Egina FPSO의 경우 8월 Sail-Away를 예상한다고 언급함. (머니투데이)

현대중공업, 상반기 수주 23억 달러...전년비 16% 증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상반기 누적 수주금액을 발표함. 현대중공업의 6월 누적 수주금액은 22.54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함. 조선 부문의 경우 16.58억달러로 67.1% 증가함. 현대미포조선의 수주는 15.0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7.3% 급증함. (EBN)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7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가로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7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